
CIGI '12 국제회의 및 Think 20 전문가 간담회 출장보고서

2012. 12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한국개발연구원

- 최근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등장과 함께 논의가 다자화 되어가면서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편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핵안보 정상회의 등의 연이은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리더십 발휘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 KDI와 CIGI(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의 공동 연구사업인 ‘Global Acupuncture Points’은 마치 맥을 짚어 침을 놓듯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들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사업은 지난 7월에 체결된 두 연구소의 LOU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10월 28~30일 캐나다 CIGI 연구소에서 주최한 ‘An Unfinished House: Filling the Gaps in International Governance’ 회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음.
 -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는 필요가 있을 시 임기응변식의 논의가 이뤄진 경향이 있었으나 본 회의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에서 벗어나 연례 회의로의 발전을 계획하여 주제의 지속적 논의 및 유기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6월 14일(목) 서울에서 ‘Global Governance Gaps’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 거버넌스와 핵안전, 국제개발협력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논의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CIGI 에서는 ‘CIGI ’12: Five Years After the Fall: The Governance Legaci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회의를 통하여 국제 금융 이슈를 논의하고자 함.

- 또한 지난 2012년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의 기여에 이어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Think 20 전문가 간담회가 11월 11~12일 워터루 랭던홀(Langdon Hall)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Think 20는 G20의 회원국 내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 연구하고 향후 해결방안 모색에 기여를 하고자 만든 공동 네트워크임.
- 멕시코 정상회의 대비한 연구 결과물이 멕시코 G20 셰르파팀에 전달되는 등 실질적인 공헌이 인정되는 바 향후 Think 20의 운영 방안 및 연구 영역 논의, 특히 '13년 러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 본 출장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진행중인 G20 후속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캐나다 워터루에서 개최되는 KDI-CIGI 공동주최 'CIGI '12: Five Years After the Fall: The Governance Legaci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회의 참석하는 목적으로 진행됨.
- 2013년 러시아 성테페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대비 Think 20 간담회 논의에 참여

②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캐나다 워터루

☐ 기 간: 2012.11.08(목) ~ 2012.11.14(수), 총 7일(출입국일 포함)

③ 출장자 명단 : 총 2명

☐ 출장자

소 속	성 명	직 위	출장기간
KDI	임원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11.09-11.14
	이태연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11.08-11.14

3	출장일정
----------	-------------

☐ 출장자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안)	비고
11.08(목)	10:40	인천 출발(이태연)	KE73
	09:30	토론토 도착(이태연)	
11.09(금)	12:35	워싱턴 출발(임원혁)	AC305
	13:59	토론토 도착(임원혁)	
11.09(금)	저녁	환영만찬 참석	랭던홀
11.10(토)	전일	회의 1일차 참석	CIGI
11.11(일)	오전	회의 2일차 참석	CIGI
	저녁	‘Think 20’ 워킹 디너(working dinner)	랭던홀
11.12(월)	오후	‘Think 20’ 전문가 간담회	-
11.13(화)	11:30	토론토 출발	KE74
11.14(수)	15:20	인천 도착	

☐ 국제학술 회의 일정

1. CIGI '12: Five Years After the Fall: The Governance Legaci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일시·장소 : '12. 11. 09(금)~11(일), 워터루 CIGI
- 초청 범위 : CIGI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파트너 연구소 및 학계 주요인사
- 진행 방식 : 각 주제에 대해 발표자의 발표 후 자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 주요 논의 과제

- The Short View: The Global Conjuncture and the Need for Cooperation
-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of Global Capital Flows
- Strengthening IFIs to Promote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ancing Critical Global Public Goods
- The Long View: Shifting Leadership in a Fragile World

☐ 세부 회의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안)
11.09(금)	18:00-19:30	환영만찬
	19:30-21:30	기조연설
11.10(토)	08:50	개회식 -James Haley, Program Chair, Director of Global Economy Program(CIGI)
	09:00 -10:30	Session 1: The Short View: The Global conjuncture and the Need for Cooperation
	11:00 -12:30	Session 2: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of Global Capital Flows
	12:30 -14:00	오찬 -오찬사:
	14:00 -15:30	Session 3: Strengthening IFIs to Promote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16:00 -17:30	Session 4: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ancing Critical Global Public Goods
	17:30-	호텔로 이동
	19:00 -21:30	만찬 -만찬사
11.11(일)	09:00 -10:30	Session 5: The Long View: Shifting Leadership in a Fragile World
	11:00 -12:00	Session 6: Rapporteur
	12:00 -12:15	폐회식
	12:15-	오찬

2. 'Think 20' 간담회

- 일시·장소 : 2012.11.11(월)~12(화), 워터루 랭던홀
- 초청 범위 : Think 2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G20 회원국의 연구소 전문가 및 초청자
- 진행 방식 : 2013년 러시아 성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주

요 의제 논의 및 향후 연구진행방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 주요 논의 과제

- 2013년 러시아 성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관련 Think 20 연구 및 기여 방안 논의
- 향후 Think 20 운영방안 및 연구 이슈에 대한 논의

① CIGI '12: Five Years After the Fall: The Governance Legaci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일 시: '12년 11월 09일(금)~11일(일)

□ 장 소: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캐나다 워터루)

□ 주요내용

[세션1] The Short View: The Global Conjuncture and the Need for Cooperation

□ [좌장] James A. Haley, Executive Director for Canada, IDB / Former Director, CIGI

- 현 세계 경제의 불황은 장기적 전략 부재의 결과로 생각됨. 그동안 경제위기는 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우선시 해왔지만 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국제 경제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부담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함.
- 최근 IMF의 WEO는 현재의 전세계적 불황에 있어 3가지 위험성을 지적하였음.
 - 첫째는 유로존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둘째로는 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문제, 지속적인 유가 상승의 가능성이 문제시됨.
- 현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한 첫 번째 위기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되어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져나

갔고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례적인 대응으로 3가지 교훈을 얻었음.

- 첫째, 통화정책은 필요시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야함. 둘째, 경제 안정을 위한 국가 재정정책은 대공황때처럼 경기 순응적으로 변하지 않았음. 셋째, G20 정상들은 국외적 부담 요소를 전가하기 위해 무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국내 고용 시장을 보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함.

- 각국은 다른 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라 상이한 정책이 요구되므로 국제적 공조와 이해가 필요함.

□ John Williamson,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G20이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단기적 문제 3가지를 언급함

- 첫째,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들을 논의하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긴박한 요구도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현재 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에 동의함.
- 둘째, 유로존 위기는 G20이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은 독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임.
- 셋째, 국제 재균형(rebalancing) 문제에 있어서 G20은 중국 등 G8에서 소외된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리더십 발휘가 용이할 것임. 따라서 G20 내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향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Stephen Pickford, Senior Research Fellow, Chatham House

- EU의 중심국들은 손실을 많이 회복하였지만 EU의 주변국들은 더욱 침체되어가고, 다양한 연관성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침.

- 현재 유럽에서는 다양한 조정과 협력이 일어나고 있음.
 - 예를 들어 ECB의 OMT를 통한 유동성 확대라는 즉각적 대응뿐 아니라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수위 강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조정도 진행되고 있음.
- 경제 위기의 큰 구조적 원인이 되는 정부 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함.
- 최근 유럽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 의사결정이 한 국가보다는 기구에 의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재정정책이나 금융 규제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규칙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음.
 -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

□ Jorgen Elmeskov, Deputy Chief Economist, OECD

- 구조조정 정책이 경제 재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OECD는 어떻게 서로 다른 구조 개혁들이 재균형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왔음.
 - 구조 개혁은 투자와 저축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임.
- 구조 개혁은 금융 개혁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금융 규제들은 실제로 강력한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노동시장 개혁은 주변국들에게는 긍정적인 개혁이 될 수 있음.
- 위기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은 국제 재균형에 의미있는 기여가 될 것이고 실제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함.

□ Mark Thirlwell,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수렴(convergence)과 차이(divergence)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음.
- 현재 세계는 신흥국의 발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렴(convergence)의 일례로는 세계 지정학적 판도 변화로 인한 G20의 탄생을 들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신흥국들은 산재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신흥국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음.
 -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수렴론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신흥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산재하는지, 혹은 구조상의 문제가 위기를 초래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함.
 - 신흥 시장의 회복력은 자국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국제적 정책 마련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즉 국내 정책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자가 보증을 포괄하면서 국내 금융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국제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기로에 서있음.
- 차이(divergence)에 있어서는 전세계에 걸쳐 심화되어가는 불평등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부채 증가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위기의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불평등은 위기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음.
 - 불평등 절벽(inequality cliff)은 정책 조정의 지속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국제적 협력의 한계도 보여주었음.

□ Golden Thiessen, Former Governor, Bank of Canada

- 미국의 재정 절벽과 유럽국가의 부채는 공공정책의 실패이므로 국제 금융위기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G20은 지난 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이 매우 극심한 상황 이외 거시 경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조정의 역할도 할 수 없으므로 G20의 역할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함.
- 국제 정책 조정은 실질적인 결과보다 시간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크므로 동의하지 않지만 국제적인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국제 정책 공조에는 동의함.
 - 국제 정책 공조의 예: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떠한 국내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
- 따라서 G20은 이러한 국제 정책 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나가야함.

[세션2]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of Global Capital Flows

□ [좌장] Pierre Siklos, Senior Fellow, CIGI/Professor, Wilfrid Laurier University, BSIA

-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여러 차례의 위기를 살펴볼 때 선진 경제와 신흥경제의 위기 사이에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융위기 등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음.
- 경제의 세부 구성요소는 지난 경제 위기 발생 요인의 일부분에 불과했으나 우리는 금융기관의 상호 연관성이나 복잡성을 무시하고 위기를 해석하려 함.

- 위기는 금융 분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곧바로 전세계적경제 위기로 확산되었고 이는 전례가 없는 상황임.
- 신흥국들은 통화의 독립성을 증대하고 금융 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개방도 추진하고 있음.
-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책은 몇 가지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우선 선진국의 재정 대응은 너무 광범위하고 즉각적이었으며, 중앙은행은 여러 분야에 걸쳐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퇴보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 안정을 목표로 세웠다는 점이 위험 요소라고 생각함.
- 현 상황 타개를 위한 5가지 대안은 아래와 같음.
 - 국가들은 국가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있어 상호간 협력을 이뤄야함.
 - 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
 -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필요함.
 - 국제적 제도나 시스템 대신에 각각의 국가들이 책임을 가지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함.

□ James Aitken, Partner, Aitken Advisors LLP

- 현 금융 제도는 단기금융자산투자신탁(money market funds), 도매 금융(whole-sale funding)과 같은 자금을 기본으로 하는 불안정한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스템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방치했음.
- 미국 금융 제도의 전체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였던 연방 준비 법률의 13-3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게 됨.

- 현재 공공 정책의 의도는 경제성장률과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레벨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제 성장과 부합하지 않음.
-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더 많은 유동자산을 가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Marshall Auerback, Director,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 경제 위기는 민간 부문의 부채로 시작 되었지만 금융과잉 경제(overly financialized economy)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부채로 발전되었음.
- 금융 개혁의 은행 대차대조표의 부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국제사회가 처음 구조적 문제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세계는 간소화된 금융 시스템을 추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지불 체계 마련과 대출 제공이 은행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하며 투자은행 제도는 폐지되어야함.
 - 은행의 업무는 대출자와 서비스 간의 직접 거래만 허락하고 대출 내역이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도록 하는 정도만이 허용됨.
 - 은행들이 LIBOR에 관여하는 것은 불허해야함.
 - 은행은 어떠한 종류의 보조금도 받을 수 없음.
 - 은행들의 업무 범위는 국내로 국한하여 해외진출은 제한되어야 하며 만약 해외진출을 하는 외국 은행들에 대해서 국내 법들을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두어야함.
 - 은행들이 신용부도스왑 보험(credit default swaps insurance)을 사거나 판매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함.
 - 은행들은 FDIC가 승인한 신용 모델들을 은행자산의 평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함.

□ Eric Helleiner, Professor, University of Waterloo

-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계획들이 논의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하였거나 효과적이지 못하였음.
- 효과적이지 못한 G20와 FSB 규제들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현재 상황에 대해 ‘아주 끔찍한 악몽이다. 규제기관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만 걱정할 뿐이다’ (Financial Time)라고 표현함.
-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은 연성법(soft law)에 기준을 둔다는 것.
- 규제기관의 네트워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상호 압박(peer pressure)과 서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 FSB는 연성법 내에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온 결과, 개선된 감시 체제, 현황 보고서, 새로운 조정 체계, 상호 압박에 대한 감시 강화, FSB 거버넌스에 대한 강화를 이루었음.
- 하지만 FSB가 제시한 규제들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가 규제 이행을 거부하고 단독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
- 현재 FSB는 진출국(host country) 규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해외 규제기관과의 공조 없이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함.
- 따라서 FSB는 규제의 강도를 낮추고 조정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Sangchee Lee, Standing Commissione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아직까진 규제들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또 바람직한 것인지 확실치 않음.
- 각 나라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파생상품이나 시장에 대한 자국의 규제도 상이함.

- 현재 국제 사회는 세계화 때문에 자금과 투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국제 금융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단일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함.
 - 국제 감시기능 공조의 최우선 과제는 이러한 규제의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임.
- 벤 버냉키는 금융 규제(financial regulation)의 국제적 조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각국 간 경쟁 구도를 유지함.
 - 다국적 기업들이 비교적 약한 규제나 법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해야함.
 - 일관적이고 완전한 기준을 세워야함.
 -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 FSB의 의석 구조를 둘러싼 주요한 문제점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속한 국가별 의석 수가 다르다는 점임.
 - 따라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진 국가들에 의해 결정이 좌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함.
 - 만약 현재의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 규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함.
- 신흥국과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의 관점에서 본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세션3] Strengthening IFIs to Promote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 [좌장] Thomas Berne, Distinguished Fellow, CIGI

- 현재 세계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있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이는 거버넌스의 실패라고 생각함.
- G20은 이론적으로 큰 문제들을 다룰 수는 있지만 공조와 조정의 문제는 G20 보다는 국제기구들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

함.

- 현재 세계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강화되어가는 반면 G20은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 Amar Bhattacharya, Director, G24 secretariat

- G20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포럼으로 시작되었고, 여전히 국제기구 혁신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G20은 국제이슈의 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 기구들을 함께 모아 그들로 하여금 논의와 공조를 이끌어냄.
- 이행의 도전과제는 여전히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IMF가 유로존 위기와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거짓이 아닌)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2013년 1월까지 쿼터 공식이 경제력 비중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임.
-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세계은행은 지나치게 US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IMF가 국제금융기구로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함.

□ Jack Boorman, Former Direct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G20 합의문의 일부는 오히려 IMF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함.
 - 특히 쿼터에 대한 G20의 성급한 결정 덕분에 IMF의 나머지 168개 회원국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
- G20은 정당성 문제와 회원국 선출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개별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에 기반한 유일한 조약은 IMF임. G20은 스스로를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라고 일컫는데 이에 동의하지는 않음.
- 무엇보다 너무 많은 문제와 이슈들이 G20 정상들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은행 문제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지는 것이 적합함.
- IMF는 감시기제는 심각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상호 압박 대신 상호 보호 기제를 강화하려면 분명한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감시기능에 초점을 맞춰야함.
-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해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면 IMFC 수준에서의 다뤄져야함. 만약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국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함.
- 또한 IMF 직원의 업무적, 정치적 독립성 또한 보장되어야함.
- Daniel Bradlow, Professor, University of Pretoria and American University
- 현재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더 많은 개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설사 개혁이 제안되더라도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고 생각함.
- 최근 세계는 지정학적 권력 시대에 살고 있고, 미래에 어떠한 기회나 도전과제를 맞이할지 예측할 수 없음.
- 광범위한 개혁은 오직 위기 시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어떻게 진행해갈지 논의해야함.
- 도전 과제 중 한 가지는 중요도가 낮은 개혁의 가능성을 알고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제 금융기구의 공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 금융기구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알고 경제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화를 추구해야함.

- 또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함.

-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현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개혁의 방법이 관련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는지, 국제 기구들이 적절한 관리 시스템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기구들이 특정 주제에 전문화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해당됨.

□ Jo Marie Griesgraber, Executive Director, New Rules for Global Finance Coalition

- IMF가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 금융 위기 문제로 말미암아 기관의 역할이 다시 활성화 되었음.
- IMF는 더 이상 채권국과 채무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관심을 유럽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기구적 수준에서는 3가지 과제가 있음.
 - 제한 받지 않는 자금의 유동성으로 국제 재정 안정성 달성
 - 긴축 없이도 안정성과 성장 달성
 - 혹은 긴축, 안정성 그리고 성장의 동시 달성
- 이제는 한정되어 있는 현 시스템 내에서 균형있는 성장을 달성해야하고 각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함.
- IMF 직원은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근래에 들어선 위기 해결 문제로 인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IMF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기 시작함.
- 비록 IMF에 많은 개선이 진행되었지만 실물 경제에 대한 기구의 재정적 영향력을 감안해볼 때 여전히 혁신이 필요함.

- 독립적인 평가부서의 강화
- 정치적 이슈 때문에 IMF 위원회가 조항에 따라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함.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해야지만 IMF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 Ngair Woods, Dean, University of Oxford

- 최근 경제위기의 발발, G20의 탄생으로 IMF에서 내리던 전략적 결정에 신흥국을 긴밀히 참여하는 등의 변수가 작용하였지만 여전히 국제기구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음.
- G20이 전원 합의를 달성하기에 비교적 회원국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7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해옴. G20 내에서 G7이 존재하는 한 소외되는 그룹이 발생함.
- 현재는 지역개발은행들의 약진에 비해 세계은행은 약화되고 있음.
- G20은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반면 IMF와 세계은행은 지나치게 큰 행정기능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느린 대응을 보여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기관의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함.
 - 유능한 고위 관리 외에 무능한 관리는 해고해야함.
 - 목적의 실행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어야함.
 - 기타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야함.
 - 고위 간부의 투명성 강화
 -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 재설정

[세션4]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ancing Critical Global Public Goods

□ [좌장] Barry Carin, Senior Fellow, CIGI

- 현재 글로벌 공공재 마련에 있어 막다른길에 다다랐으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가 명쾌히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만약 사용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지출 계획이 새로 고안될 수 있을 것이고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 마련을 위한 자금 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수평적 사고로부터 도출된 해결책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해보아야함.

□ Francisco Sagasti, Senior Researcher, FORD Naciona International

- Dr. Carin의 페이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 부정적 측면에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기후변화 자금을 모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 하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주요 경제국을 설득하여 일단 기금 마련이 시작된다면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는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요 경제국들은 그 긍정적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앞으로 기후 변화 펀드 관련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이슈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함.
- 우선 기후 변화 펀드를 둘러싼 문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해야함. 즉 통합된 방식 내에서 차별화를 두어 접근해야함.
- 또한 각 개별 국가는 서로 다른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하

나의 해결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따라서 통합적 해결방안 내에서 국가 특성별로 차별 적용을 해야함.

-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adaptation)과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의 감소(mitigation)를 분리하여 논의해야함.
- 기후변화완화는 선진국들의 주요 관심사이고 반면 기후변화 적응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라고 생각함. 특히 기후변화적응은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재난 구호(disaster relief)를 제외한 기후변화완화 사업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를 대비한 자금마련 방안을 따로 생각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
- 두 사업 간 유일한 차이점은 기후변화 영향력, 탄소 배출에 관한 고려를 한다는 것뿐인데 이미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고려하는 부분이므로 사실상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음.
- 단 예외로 재난 구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매터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무엇보다 기후 변화 관련 이슈와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용가능한 접근법이 필요함.

□ Wonhyuk Lim, Director of Global Economy Research, KDI

- Dr. Carin의 페이퍼는 기후변화자금 마련의 다른 방법들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민간투자가 촉진되어 실질적인 유럽경제 활성화의 도화선이 된 것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시스템 체계 변화(regime change)를 유도할 정책적 도구(policy measure)가 무

엇일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됨.

-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및 탄소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제도는 재정적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있음.
-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정량화하여 반영할 수 있는 탄소세와 탄소관세를 정책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미국 또는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이 탄소세를 국내 차원에서 도입하고 WTO 비차별원칙 및 최혜국대우를 포함하는 국제무역협약과 합치되는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면, 민간분야는 이를 시장의 녹색체계의 재편으로 인식,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음.
- SDRs에 대한 발표자들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실질적인 이행방안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단순함. SDRs를 통하여 축적된 자금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활용, 녹색채권(green bond)을 통하여 기후변화를 해소하기 위한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여부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국가들은 대부분 소도국임.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풀어갈 국내자본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은 상당부분 개발협력의 특성을 내포함으로 보조금 등의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Inge Kaul, Adjunct Professor, Hertie School of Governance

- 글로벌 공공재(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금융 안정 등)는 도합과정(summation process)을 거치고 있음.
- 지역별, 국가별로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국가적 수준의 활동은 목표를 밀들고 있음.

- 그 이유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현상(free-riding), 강대국들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 역량 부족, 자원 부족, 공공재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이행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G20은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포럼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관련 기업과 금융인들은 G20에 의지하는 것을 지양해야함.
 - 기후 변화는 현재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관(예를 들어 환경안보위원회 등)이나 부처(환경부, 에너지부) 등의 설립이 시급함.
 -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고(name and shame), 상호 압박 및 해결 과정에 대한 보고와 분석이 이뤄져야함.
 -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함.
 - 현존하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는 통화거래세(currency transaction tax)를 포함하지 않는데, 통화거래세 도입을 통하여 개발과 기후변화를 위한 기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Lawrence MacDonald, Vice President Communications and Policy Outreac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Dr. Carin의 페이퍼에서 UNFCCC의 실패를 인식한 부분과 다양한 금융 매커니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한 부분이 특히 유용했다고 생각함.

- 이제까지는 본 주제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 주로 논의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목적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미국 수출품에 있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의 로비를 막고, 기후 변화에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될 것임.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임 이후,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 특히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중동 산유 기업들의 로비로 인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비판받아야된다고 생각함.
 - 미국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임원혁 박사님의 의견처럼 탄소세 도입에 적극 찬성함.
- 둘째로, 최근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는 'Green Print'라는 단행본에도 실려있듯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가 미국으로 하여금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마지막으로, 본 문제에 있어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CIGI가 향후 6개월 안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의견을 제안함.

[세션5] The Long View: Shifting Leadership in a Fragile World

□ [좌장] Paul Heinbecker, Distinguished Fellow, CIGI

- 현 세대는 최고의 전성기(golden age)를 만끽하고 있으며 조금 더 세상을 낙관적인 관점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음. 따라

서 현재 문제점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가 현재 수준의 부, 평균 수명, 안보, 교육 수준을 누린 적이 없었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뤘음을 인정해야함.
- 예를 들자면, 현재 세계는 전쟁의 횡수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이상 줄었고 교육, 건강 등의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음.
-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할 것임.

□ Lourdes Aranda, Deputy Foreign Minister; G20 Sherp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exico

- 멕시코와 같은 신흥 국가들이 서서히 국제기구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신흥국과 선진국들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멕시코의 경우도 이미 NAFTA, OECD 등 주요 국제적 논의에 참여해왔고 G5, G8 논의에도 초청국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G20 회원국 가입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신흥국들은 정책입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해나가야함.
- G20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거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구조 개혁,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성을 인정해야함.
- 각국마다 국내적 상황과 관심이 상이하기 때문에 G20 내 모든 이슈에 대해 일관된 의견을 보이기 쉽지는 않지만 회원국 간의 신뢰 구축(confidence building)과 공조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모든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과 같은 국제

기구 또한 그 역할이 중요하지만 G20이 UN의 효과성 있는 결론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Michael Callaghan, Former Executive Director, Australian Treasury

- 현재 국제 사회는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국가들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에 더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라고 생각함.
 - 세계화 시대에서 거시경제, 에너지, 자원, 안보 등의 문제는 각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간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세계 부의 50%는 신흥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흥국들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또한 현재의 G20은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각국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학습의 과정(learning process)에 있다고 생각함.
- 또한 미국의 재정 절벽이나 유로존 위기 등은 개별 국가의 의사 결정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G20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함.
 -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구나 G20에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함.
 - 개별 국가의 잘못된 정책 처방으로 인한 비판을 국제 기구들이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적 문제 해결보다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와 영향력 행사에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함.
- 국제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야 하며, 경성법(hard law)이나 연성법(soft law)에 따르기 보다는 집단 지도체제, 신뢰와 협력을 중심으로 공조해야하고 개별 국가들은 낙관적

이고 건설적인 관점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함.

- G20이 집단지도체제로서 예로서 기능하고, 좋은 정책을 사례로 제시하고 설득과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추구해야할 것임.

□ Cyrus Rustomjee, Director, Economic Affairs, Commonwealth Secretariat

- 현재 우리는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 약소국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려해야함.
 -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희생양이 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복원력 회복은 중요한 문제임.
 - 영국연방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나 아직도 기후변화 문제, 무역 등 국제적 문제에 취약함.
- 글로벌 리더쉽이란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고 특히 아래의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 현재 무역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함. 5년 전 OECD국가의 무역 감소 때문에 이러한 연방국들은 전체 GDP의 2.5%가 감소되는 등의 타격을 입었고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 Aid for Trade 등의 분야에서 G20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G20 개발 논의의 시작이 되었던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은 고무적이었으나 개발 전략의 주요 방향과 과정을 명확히 해야할 것임. 특히 개발 의제는 글로벌 재균형 등의 의제에 비해서는 국가간 손실이 비교적 적은 분야인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15년 Post MDGs 개편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특히 새천년 개발계획(MDGs process)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계획(sustainable development goal process)는 하나의 논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결국은 UN 시스템 내에서 논의되

고 있지만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시정되어야 함.

- G20를 통해 정상들은 개발 거버넌스와 환경적인 거버넌스의 촉진자로서 UN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아프리카 국가의 빈곤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빠른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이 예상됨. 현재 G20 내 아프리카 국가는 단 한 국가뿐이지만 이를 확대하고 국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함.

□ Xue Lan, Professor and Dean, Tsinghua University

-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글로벌 리더십은 사라지고 이제는 분배된, 혹은 집단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중국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내 지향적(domestic oriented)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현재 중국은 아래와 같은 국내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해야함.
 - 현재 경제성장이 약화되고 있음.
 - 환경적, 사회적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의무를 지님.
 - 엄청난 인구 증가율에 직면하고 있음.
- 국외적으로, 미국이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 서로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외교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내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최근 당대회 보고서(party congress report)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인간 사회(human society)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국내적 상황 뿐 아니라 국외적 상황도 고려해야함.
- 기후 변화, 생태계보호와 환경 개발이 우선순위로 논의됨.
- 따라서, 중국은 향후 국제적으로 더욱 활발히 논의에 참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함.

[세션6] Rapporteur

□ John Helliwell, Program Direct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재정 절벽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너무 좁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며, 현재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행복보고서(happiness report)는 다음 총회를 위한 계획 중 일부분이며 목표 중 하나로 수립되었음.
- 국가들은 인간성(human quality)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지만 경제적 자료들이 방대한 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에만 집중하게 됨.
- 사람들은 오히려 함께 일하거나 타인을 위해 일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됨.
- 현 경제위기를 놓고 보면, 공조에 걸림돌이 되었던 정치적 갈등 요소가 결국은 금융 시장에 혼란과 야기하였음.
- 세계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국제적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기 시작했으나, 신뢰가 빨리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류는 친사회적(pro-social) 존재이며 천천히 신뢰를 형성하

고,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됨.

- 다양한 민족, 국적, 그리고 인종이 모여 있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들이 바로 공유의 가치를 내포한다고 생각함.



② Think 20 Planning Meeting

- ☐ 일 시: '12년 11월 11일(일)~12일(월)
- ☐ 장 소: 랭던 홀(캐나다 워터루)
- ☐ 주요내용

[Think 20의 목적]

- ☐ Think 20 네트워크는 G20의 20여개 회원국의 연구소로부터 모인 전문가들이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또한 아이디어 बैं크(ideas bank)로서 향후 논의 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고, 회원국을 포함한 G20에 새로운 관점의 분석을 제시하여 글로벌 조정위원회(global steering committee)로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관련 Think 20 활동]

- ☐ Think 20 네트워크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성과는 지난 2월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함. Think 20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는 3월 G20 셰르파 팀에 전달되었음.
- ☐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Think 20의 기구화(institutionalization)를 지지하는 내용이 언급됨.
- ☐ Think 20는 학습(learning)과 외연확대(outreach)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 의장국의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함.

[2013년 러시아 성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대비]

- ☐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를 대비한 'Think 20' 국제회의가

COMEXI와 RANEPА(The 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Lowy Institute가 주최 아래 1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

- '13년 러시아 정상회의의 주제는 '경제성장 육성과 지속가능성(Fostering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이고 아래 3개의 세부 주제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
 - 경제 성장의 활성화: 거시경제이슈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로존 위기와 국가 부채의 재조정
 - 무역과 FDI: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방법과 수렴(convergence)을 위한 향후 방안 마련, 국제 금융 흐름에 대한 규율 등.
 - 지속가능한 성장 개선: 세계 동반 성장,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 12월 11일 예정된 'Think 20'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 날 언론에 발표될 예정이고, '13년 중반쯤 개최될 추가적인 Think 20 회의에서 발표될 Think 20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Civil 20는 불평등과 통합 이슈를 다룰 예정이고, 참고로 G8/G20 워킹그룹 회의도 12월, B20 회의는 내년 6월에 예정되어 있음.

[향후 Think 20 운영에 관한 논의]

- '의지의 연합군(coalition of the willing)'과 같이 다소 유연한 접근법을 통하여 이슈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며 각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전문 분야와 연구 우선순위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조,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할 것임.
- G20 의장국에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국의 주요 관심 이슈에 초점을 두나 반드시 공식적인 이슈들에만 한정하지

는 않음.

- 따라서 현안 중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주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G20의 논의가 필요한 분야, 또한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함.

(1) 현안

- G20의 주요 이슈는 거시 경제, 경제 위기 관리, 유로존 위기, 금융 분야 개혁, 통화 흐름과 국가 부채 재조정 등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만약 정상회의 전에 큰 위기가 닥친다면 그것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하고 의장국이 국내적으로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함.

(2)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

- 녹색성장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나 녹색성장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이 사실임.
- Think 20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를 하였고, 본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
- 무역 또한 G20이 다뤄야할 주제임. 도하 라운드 이후 무역은 보다 넓은 이슈들을 포괄하게 되었고 Think 20 연구소들은 무역 분야에 대한 모멘텀을 세워서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함.

(3) G20의 구조적 문제

- Think 20는 G20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분석해야함.
- G20이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또

한 어떻게 국제사회의 문제점들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G20의 성과와 한계, G20의 세부 조직(워킹그룹, 장관회의 등)의 업무 분석, 셰르파팀과 금융기구들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함.
- 의장국의 수가 많아질수록 논의되는 주제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정상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그 외 기술적인 해결이 필요한 주제에 있어서는 워킹그룹이나 기타 국제기구에 의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절한 조정이 이뤄져야함.

(4) Think 20의 운영 전략

- Think 20의 활동이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G20의장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G20 회원국과 워킹그룹이 Think 20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의장국과 Think 20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미디어 전략을 마련해야하고 Think 20의 의사소통 전략과 G20의 의사소통 전략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함. Aranda 대사가 미디어·언론과의 의사소통 전략을 간략히 마련하여 회람할 예정
- Think 20의 의견이 더욱 신뢰를 얻으려면 일차적으로 국내 연구소를 통하여 정부 공무원들에게 여과되는 것이 좋음. 또한 전문성이 있는 다른 파트너 기관을 발굴하는 데에 공조가 필요함.
- Think 20가 모든 주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공동 채널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안서는 간결하지만 명확하고 직접적인 제언을 담고 있어야함. 다음 준비회의에서는 연례 간행물 발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